

남녀대학생의 부모기 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효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이경희(Kyoung Hee Lee)¹⁾

윤미현(Mi Hyun Yoo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developed to 295 single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pre-test and the post test on the program. The data is interpreted using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he Percentage, T-Test, Anova test, and the Turkey tes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the knowledge on parenthood existed amo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tests, with the post-test students showing more knowledge on the matter. Among the six sub-categories of parenthood education program, the effects of the post-testing were most visible in pregnancy, delivering, pre-natal and infant development, parents attitude, and sex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n the form of increased awareness and knowledge.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s were detected in pre-natal education.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 effects were more visible in female students than in male students.

Second, the program also resulted in positive effects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Key Words : 부모교육(Parental education), 효과(effectiveness),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¹⁾ 강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²⁾ 강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Hee Lee, Kangwon University, Hyojadong Chunchon-si, 200-701, Kangwondo Korea

E-mail : Kyoung@Kangwon.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생애 주기 중에서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혼란의 시기이다. 또한 진로문제, 이성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시기로서, 부모역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전략 및 기술을 배우는 교육적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신용주 · 정혜선, 2003).

부모교육이란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이나 예비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이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증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상에 부합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적합한 양육모델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역시 부족하다. 특히 확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어른의 경험적 조언이나 양육정보의 전수, 혹은 다양한 기술의 습득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중학교 정규 가정교육 교과과정에서는 주로 입시위주의 인지발달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훈련 및 임신, 출산,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신용주 · 정혜선, 2003). 그러므로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또는 부모기에 자녀양육을 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가 급변

하면서 가족의 기능도 변하여 미혼모나 10대 미혼모(teenage parent)가 증가하게 되었고, 청소년 시기에는 자녀들의 성장, 발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부모나 예비부모로서 청소년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다량의 정보 습득 및 긍정적인 가치관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시대나 사회 또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9.2건에서 2001년 6.7건으로 줄어든 반면 이혼율은 같은 기간 0.4건에서 2.8건으로 7배 증가했으며,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조이혼(早離婚)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2). 이는 상당수 이혼부부가 혼인 이전에 문제를 안고 있고,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회원 30개국 중 3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예비부모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결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김혜선 · 박희성, 2001), 따라서 이들에게는 부모교육을 통해 혼수보다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지식과 자세를 준비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기 준비시기에 놓인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기를 위한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하는데, 부모기 준비시기에 제공되어야 할 지식과 내용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태내 임신시기 이므로 태내 임신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다룬 임신영역(민하영 · 유안진, 2003), 출산시기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 출산영역을 비롯해서 태교영역(이선하, 2001) 뿐 아

나라 신생아 및 유아발달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다룬 신생아 및 영유아발달영역(박문일, 1999; 유안진, 1983;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rajan, Rao & Eadhakrishnam, 1999)을 부모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성격과 인성을 좌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갖는 양육태도(박민선·박성현, 1999; Melson, Ladd & Hsu, 1993; 강란혜, 2001; 허선자, 1993; 이정순, 2003)이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영역 및 자녀 성교육에 관한 지식들을 다룬 자녀성교육영역(연규원·이근후, 1985; 김주희외, 2003)의 6가지 영역을 부모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자하며 이를 통해 부모기 준비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식의 배양은 물론이고, 예비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 실시는 관련지식증가에 효과가 있는가?

1-1. 부모기의 준비교육프로그램 실시는 전반적인 부모기 준비를 위한 지식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1-2. 부모기의 준비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6가지 영역별 지식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부모기의 준비교육프로그램은 참여효과가 있는가?

2-1. 성별에 따라 6가지 영역별 지식 증가에 차이를 보이는가?

2-2. 연령에 따라 6가지 영역별 지식 증가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의 준비교육프로그램 실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3-1.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갖고 싶고, 자녀에 대한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3-2. 배우자 선택기준이나 중요성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부모교육에 필요한 교육영역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의 정의

부모교육의 정의는 McAfee와 Nedler(1976)에 의하면 “부모역할에서 부모의 능력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고안된 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였고, Croake와 Glover(1977)는 “부모들이 자녀를 다루면서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기법을 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시도하는) 부모들의 목적 있는 학습활동”이라 했으며, Earhart(1980)는 “부모교육은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위해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 주는 모든 형태의 경험과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한성심, 1983). 또한 “부모 됨의 준비란 앞으로 부모가 될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및 예비부모들에게 남녀 간의 데이트 및 배우자 선택에 관한 지식 뿐 아니라 임신, 태교, 출산에 관한 지식, 자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성격에 미치는 영향, 영아,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교육에서 성교육의 필요성 등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부모가 되고자하는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준비 등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이경희, 2000) 정의할 수 있다.

이밖에 부모가 되기 전에 거치는 예비부부들에게 필요한 “결혼준비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절차나 혼수준비 등의 협의의 의미 뿐아니라 결혼 생활의 적응을 위해서 정서적, 인격적, 신체적, 경제적, 법적, 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김혜선·박희성, 2001)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 준비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결혼생활 준비 및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과 부모로서 지녀야할 긍정적인 부모가치관교육”을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의 정의(이경희, 2000)로 보고자 한다.

2) 부모교육에 필요한 아동발달영역 및 부모 양육태도

(1) 임신영역

실질적인 아동양육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민하영·유안진, 2003) 임신과 출산과정은 부모교육내용으로 포함 되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김경례(2001)는 한국여성의 출산경험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에 대한 산모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연구로서, 1980년 이후에도 산모들의 피임권과 낙태권은 1991년까지 국가의 가족계획에 의해 유지되며, 임신권 역시 자신의 의사라기보다는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주심주의에 의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하면 가계계승을 위해 임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여성의 출산방법결정은 산모보다도 의료진 위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의료진들은 피검사,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무통분만, 분만실공간배치까지도 산모를 위해서라기보다 의료진의 효율적인 산모관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윤지영·강문희(2004)의 임신 중 태아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연구에서는 임신부-태아 상호작용증진프로그램에서 임신부가 태아와 관계 맺는 것을 경험할수록 임신부가 태아와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여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를 볼 때 부모교육을 통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임신 시 태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2) 출산영역

출산에 관한연구로 신용덕(1993)은 모성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 체중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조산율은 비 직업군 중 24세 이하가 18.9%로 가장 높는데 비해 35세 이상에서는 직업군의 조산율이 13.2%로 비 직업군 보다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 체중아 출산경험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저 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유산경험은 산모연령이 35세 이상의 경우에 직업군이 42.1%로 비 직업군 25.9%보다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하영·유안진(2003)의 어머니세대와 할머니세대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는 출산알림에 대해 어머니세대는 할머니 세대에 비해 전화알림을 사용하였고 금줄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의 있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의 경우 어머니세대는 친정어머니

에게 의존하는 것에 비해 할머니세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의존하는 비율이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식으로는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 모두 미역국이 대표적인산식으로 나타났다(민하영·유안진, 2003). 이들 연구들을 볼 때 부모교육은 예비부모들에게 출산의례의 지식을 넓히고, 조산과 저 체중 출생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해 결혼연령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기본적인 부모교육내용이 될 수 있는 신생아와 유아발달에 관한연구는 영아 신체성장발달영역(신용덕, 1993), 유아인지발달영역(길가영·최경숙, 2003; 성현란외, 2004), 유아 언어교육영역(이현진, 2003; 장유경·엄운주, 2003), 유아정서발달영역(홍영희·이영, 2003), 유아사회성 및 도덕성발달(최기영, 2002; 손화희 외, 2003)등이 있다. 이런 영유아기 발달영역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반응에 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영아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며(이지연외, 2004), 아동과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공격성 및 위축된 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을 뿐아니라 사회적 기술 부족을 초래하는(MacDowell & Parke, 1984; 권연희·박경자, 2003)등 부모의 상호작용과 유아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기 준비교육내용으로 유아발달영역에 관한 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태교영역

최근 태내학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태중교육(박문일, 1999; 유안진, 1986;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rajan,

Rao, & Eadhakrishnam, 1999), 태교의 인식도연구(이선하, 2001)를 보더라도 태교는 부모교육으로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태교에 대한연구로는 전통적인 태교에 관한 인식(장순복외, 1996)연구 등이 있다. 또한 전통사회의 임신과 출산 풍습에 대한 유안진(1994)의 연구와 전통사회의 임신, 출산풍습이 할머니 세대에서 어머니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모했는지 살펴본 유안진·민하영(2000, 2003)연구가 임신출산 및 태교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민하영·유안진(2003)은 임신 및 출산풍습에 대해 한국, 홍콩, 미국 문화 내 세대별 차이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콩과 미국에 비해 한국은 어머니세대보다 할머니세대가 임신출산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 믿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출산아의 성별에 대한기대는 남아에 대한 기대가 두문화보다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세대간 비교 시 세 문화 모두 할머니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높은 남아선호의식을 보였다. 임신 시 보약 등의 약물 복용은 한국과 홍콩모두 두 세대간 차이 없이 보약을 복용하지 않고, 특정음식을 기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관련된 부부관계는 세 문화 모두 어머니세대가 할머니세대보다 배란일에 부부 관계를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태교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임신 시 음식 및 부부관계를 개월 수 별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5) 부모의 양육태도영역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발달과의 관계연구 중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인데(박민선·박성현, 1999; Melson, Ladd &

Hsu, 1993), 이는 부모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의 발달과 적응 면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Downey & Coyne, 1990; Miller, Crown, Hetherington, & Clingempeel, 1993), 그 연구결과 우울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동의 행동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울증은 성인기에 빈발하는 정신장애이고(Downey & Coyne, 1990), 특히 출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발병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Weissman, 1987)아동들이 어머니의 우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여아의 경우 어머니 우울에 노출될 경우, 신체적증상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동의 수동, 의존경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한영옥외, 2003).

이밖에 주 양육자가 영아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어머니에 대해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실행모델을 갖고 자신에 대해 사랑받을 개체로 인식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발달하는 유아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뿐 아니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Sroufe & Fleeson, 1986; 박경자·권연희, 2002) 부모와 유아와의 애착관계형성문제는 부모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고, (전춘애·박성현, 1996; 김기현·조복희, 2000; 박경자·권연희, 2002) 유아의 애착안정성에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박경자·권연희, 2002),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원만히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매개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Mcloyd & Wilson, 1991). 그러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미래 부모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이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녀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예비부모들 개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래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데, 최근에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관혜, 2001; 이정순, 2003).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의무로 검토되어 왔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가족구조의 변동 등에 의해 자녀양육은 남녀공동의 발달과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특히 아버지의 성역할관이 자녀의 수,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사와 자녀양육에의 참여, 어머니의 행복감에 관한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Deutsch, Lussier, & Servis, 1993; Greenberger, & O'Neil, 1993; Kessler & McRae, 1982; Hoffman, 1989) 부모교육내용에 아버지의 역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6) 자녀성교육영역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자녀의 성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대학생자녀의 성태도 뿐 아니라 성행동에 허용적이

고 도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희외, 2003). 특히 청소년후기자녀의 성태도는 청년기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간의 성적적응 및 기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결혼 전의 이성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인간관계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James, 1979). 또한 부부간의 성적 잠재성에 대한 예측은 청년기까지 형성된 성태도 및 성행동이 크게 작용된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연구원·이근후, 1985; 김주희 외, 2003) 부모의 성태도 및 미래 자녀에 대한 성교육도 부모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심(1983)의 부모훈련프로그램 모델에 관한 실험연구결과, STEP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부모의 성향이 긍정적 거부형과 기대형의 부모에게만 효과가 있고, 그 밖의 엄격형, 간섭형, 불안형, 익애형 등의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또한 자유토론편식의 부모교육이 효과적이었고, 집단 내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가진 부모집단일 때 보다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실시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모든 계층의 집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연구는 박영충(1985), 유도봉(1996)의 연구가 있는데 박영충(1985)의 연구는 STEP 프로그램을 아버지에게 적용한 연구로,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 역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봉(1996)의 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모가 주 부모역할을 담당하고, 부는 조건부로 어머니의 취업을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에서 아버지들은 책이나 팸플릿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교육훈련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역할수행과 자녀성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도봉(1996)의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모효율성훈련이 자녀지도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권춘기(1993)의 연구는 부모역할훈련(P.E.T)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한 결과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양육태도가 개선되고, 결혼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자신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자녀에 대한 진보적인 교육수단사용이 증가되고, 성인 중심적 교육관에서 자녀중심적인 교육관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녀들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부를 배재하고 모에게만 실시한 것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지도방법과 정서적인 태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 제한점이 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장기순(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녀수용성, 자녀독립심권장척도, 자녀자율성조장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부모교육은 자녀양육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모의 연령이 유치원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되어 있고, 10일정도의 단기적 효과만을 본 것으로 모든 부모에게 일반화 하는데 제한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모의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습득, 양육태도의 변화, 아버지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의 성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기 준비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습득, 양육태도의 변화, 아버지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의 성교육은 물론이고 임신과 출산, 태교 등이 더 포함된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배우자 선택기준이나 중요성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결국 미래 부모가 될 학생자신의 행복을 돕고,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강원도 춘천지역의 K 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인문계 대학, 자연계 대학, 사범계 대학, 예술대학, 정법대학, 경영대학, 의약대, 농·임·축대 등에 속하는 1-4학년 295명으로, 이들은 교양으로 부모교육과 아동발달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n(%)	N=295
성 별	남학생	127(43.1)	
	여학생	168(56.9)	
연 령	만18-만19세	35(11.9)	
	만20-만21세	220(74.6)	
	만22-만23세	18(6.1)	
	만24-만25세	18(6.1)	
	만26세이상	4(1.4)	
학 년	1학년	234(79.3)	
	2학년	41(13.9)	
	3학년	10(3.4)	
	4학년	10(3.4)	
소속대학	사범대학	29(9.8)	
	공과대학	18(6.1)	
	자연대	7(2.4)	
	인문대	93(31.5)	
	예체능대	6(2.0)	
	의약대	1(0.3)	
	경영대	59(20.0)	
	법대	12(4.1)	
농·임·축대	70(23.7)		

2.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교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6개영역 즉 임신영역, 출산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태교영역, 부모의 양육태도영역, 자녀의 성교육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이경희(2000)의 부모교육과 아동발달프로그램을 기초로 임신영역(신용덕, 1993), 출산영역(이경희, 2000),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길가영·최경숙, 2003; 김혜리·이경희, 2003; 권영민·이춘재, 2004; 장유경·김숙현, 2003; 장유경·엄윤주, 2003; 홍영희·이영, 2003) 태교영역(박문일, 1999; 유안진, 1983;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rajan, Rao, &

Eadhakrishnam, 1999; 민하영·유안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영역(도현심·최미경, 1998; 박민선·박성현, 1999; Melson, Ladd, & Hsu, 1993), 자녀의 성교육영역(김주희 외, 2003)등의 연구의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및 활동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2) 프로그램 각 주제

(1) 임신영역

남녀생식기의 명칭 및 기능, 수정, 임신기간, 임신의 첫 증상, 낙태등 임신과 관련된 영역으로 대학생들이 분명하게 알아야할 구체적인 임신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출산영역

아기가 나올 때 먼저 나오는 이슬부분을 비롯해서 분만의 3단계과정, 이상분만으로서 전기파수와 조기파수, 유산, 겸자분만, 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의 내용. 라마즈 분만법, 르바이에 분만법의 내용, 양수천자법등 기형아 출산예방법, 인큐베이터에서의 미숙아 보호법 등으로 출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신생아 체중감소 및 신생아 질병, 신생아의 생존 및 비생존 반사, 신생아의 신체발달, 애착발달, 유아성격발달, 유아정서발달, 유아지능발달, 유아 읽기지도 및 쓰기지도 방법, 유아놀이지도 및 사회성발달, 유아도덕성발달, 자아개념 발달 등 신생아 및 유아에 관한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발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태교영역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전해내려 오는 부친태교

및 모친태교, 담배 및 술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 관한 내용들로서 태아를 위해 임신전과 후에 지켜야할 임신부부의 몸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부모의 양육태도영역

부모가 되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 모유의 장단점,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및 아버지부재의 영향, 부모의 적절한 권위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 부모자녀 대화에서 나 전달법의 효과 등 부모의 양육태도가 전반적인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자녀성교육영역

자위행위, 남녀의 성적인 충동과 욕구, 남녀 피임기구사용법 및 성가치관 교육등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절하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할 성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3) 프로그램 활동 유형

(1) 이론 강의

- 배란, 수정과정, 임신의 증후에 관한 비디오 관찰을 기초로 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매독, 근친결혼, 방사능물질의 노출, 모체의 바이러스 감염과 기형아 발생가능성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비롯해서 신생아 및 유아, 아동발달에 관한 강의 내용을 듣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의 이해는 물론이고, 인간발달에 관한 Frued, Erikson, Piaget(1954) 등의 발달이론 이해하기.

(2) 소그룹활동

- 7-10명씩 소그룹으로 나누고 우리나라 제

왕절개 실태 등을 신문자료 및 연구 자료를 찾고 내용 분석하기. 성교육에 대한 입장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성교육의 이론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 Lasswell(1980)의 사랑의 유형척도로 자신의 사랑의 유형분석하고 발표하기.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의 출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모기와 비부모기 선택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특히 논문 및 신문자료를 통해 저 출산

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분석하고 발표하기.

• 부모기로의 전환과 위기, 부모기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상황 변인, 부모됨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자신의 부모 됨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기.

• 모유의 장단점에 대해 연구자료 찾고 발표하기.

• 동의보감의 부친태교내용과 우리나라 태교 연구 자료 찾기.

〈표 2〉 프로그램의 전체 순서 및 내용

목 표 회	강의 내용	활동개요 및 목적
배우자 선택, 임신 및 임신과정에 관한 지식습득과 그 중요성 인식하기	1. 이성교제 및 데이트 2. 자녀에 대한 가치 3. 부모 됨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의 기능, 사랑의 의미 및 유형,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이론, 배우자 선택이론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이해하기. Lasswell(1980)의 사랑의 유형척도로 자신의 사랑의 유형 분석하고 발표하기.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의 출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기와 비부모기 선택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특히 논문 및 신문자료를 통해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분석하고 발표하기. • 부모기로의 전환과 위기, 부모기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상황 변인, 부모 됨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자신의 부모 됨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기.
	2. 임신과정 및 임신의 증후 2. 기형아 발생원인 3. 태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란, 수정과정, 임신의 증후에 관한 비디오 관찰 및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 매독, 근친결혼, 방사능물질의 노출, 모체의 바이러스감염과 기형아 발생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 배란기의 수정장면, 태반과 탯줄의 생성, 월령별 태아발달 및 태내기 주의할 점을 비디오로 관찰하고 느낌 써 보기.
출산에 대한 지식습득 및 자연분만의 중요성 인식하기	3. 아기의 탄생과 생리 2. 라마즈(Lamaze) 분만법과 르바이에(LeBoyer)분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과정(개구기, 만출기, 후산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 후 분만장면을 비디오로 직접관찰하고 느낌 써보기. • 라마즈 분만법과 르바이에 분만법의 의도를 이해하고 비디오로 분만과정 관찰하기.
	4. 이상분만과 조치 2. 우리나라 제왕절개의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조산, 난산, 조기파수, 유도분만, 겸자분만, 제왕절개 상황과 자료를 컴퓨터영상 및 OHP자료로 보기. • 우리나라 제왕절개 실태를 신문자료 등으로 분석하기.

〈표 2〉 계속

목 표	회	강의 내용	활동개요 및 목적
신생아생리를 이해하고 유아발달의 원리를 이해하기	5	1. 발달의 개념 및 신체발달의 원리 2. 영아기 신체발달 3. 신생아 감각 및 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의 개념 및 신체발달의 중요성, 원리, 특징 등을 이해하기. 영아기 생존반사 및 비 생존반사, 신생아 감각 및 생리에 관한 비디오 관찰 및 이해하기. 모유의 장단점에 대해 연구자료 찾고 발표하기.
	6	1. 유아성격발달, 정서발달 및 애착발달 2. 유아인지발달, 언어발달, 놀이발달, 도덕성 및 자아개념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 Erikson의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문제아동진단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 아동BGT, HTP, 문장완성검사 및 상담아동의 접수면접지의 OHP자료 분석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유아 애착발달 및 도덕성발달, 언어 및 놀이발달에 관한 비디오 관찰을 통해 이해하기.
태교의 중요성 및 태교의 효과 인식하기	7	1. 부친태교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보감의 부친태교내용과 우리나라 태교연구자료 찾기.
	8	2. 모친태교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교신기 및 동의보감에 나타난 삼태도 칠태도의 내용과 임부가 먹어야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할 음식. 태몽의 역할, 해산음식에 대해 이해하기.
부모양육태도의 유형과 아동성격형성과의 관계 인식하기	9	1.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아버지역할지지이론, 아버지역할개념변화, 아버지존재와 부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논문 자료 분석, 비디오 감상(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 및 소그룹 발표를 통해 이해하기.
	10	1. 부모교육의 필요성 2.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성격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부모교육이론 및 프로그램의 소개 및 분석하고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해하기. 자녀양육형태,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변화를 이해하기.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하기	11	1. 피임기구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피임기구 콘돔과 여성피임기구 폐미돔 및 그밖에 피임법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사용방법 알기.
	12	1. 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교육에 대한 입장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성교육의 이론 및 성교육 프로그램분석하고 이해하기.

•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부재에 관한 논문자료 찾고 분석해서 발표하기.

(3) VTR이나 OHP를 이용해 자료를 보고 감상문 써오기

• 배란기의 수정장면, 태반과 탯줄의 생성, 월령별 태아발달 및 태내기 주의할 점을 비디오로

관찰하고 느낌 써 보기.

• 아기의 출산장면을 직접 비디오로 보기. 유산, 조산, 난산, 조기파수, 유도분만, 겸자 분만, 제왕절개 상황과 자료를 VTR과 컴퓨터영상자료 및 OHP자료로 보기.

• 영아기 생존반사 및 비 생존반사, 신생아 감각 및 생리에 관해 비디오를 관찰하고 느낀 점 써

보기.

-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아버지역할개념변화, 아버지존재와 부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디오 감상 및 느낀 점 제출하기.

(4) 심리검사 자료 분석하기

- 아동 BGT, HTP, 문장완성검사 및 상담아동의 접수면접지의 OHP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해하기.

(5) 실물교육

- 남성피임기구 콘돔과 여성피임기구 페미돔 및 그밖에 피임법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실물 및 모형을 통한 사용방법 알기.

3.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문항은 임신 10문항, 출산 8문항,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10문항, 태교 5문항, 부모의 양육태도영역 7문항, 자녀의 성교육영역 5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항은 이경희(2000)의 부모교육과 아동발달프로그램을 기초로 임신영역(신용덕, 1993), 출산영역(이경희, 2000),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길가영·최경숙, 2003; 김혜리·이경희, 2003; 권영민·이춘재, 2004; 장유경·김숙현, 2003; 이현진, 2003; 장유경, 엄윤주, 2003; 홍영희, 이영, 2003등) 태교영역(박문일, 1999; 민하영·유안진, 2003; 유안진, 1983;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rajan, Rao & Eadhakrishnam, 1999), 부모의 양육태도영역(도현심·최미경, 1998; 박민선·박성현, 1999; Melson, Ladd, & Hsu, 1993), 자녀의 성교육영역(김주희 외, 2003) 등의 연구의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여러 문항

제작한 후 가장 적절하다고 본 45문항으로 축소시킨 후, 아동학분야의 박사 4인으로 하여금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검사의 전체신뢰도 계수는 $\alpha = 0.669$ 였다.

4. 측정절차

1) 사전검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30일에서 2005년 9월 3일까지 설문지를 통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실험실시

본 프로그램은 2004년 9월6일에서 11월 26일까지 총 12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주당 시간은 100분이고, 강원도 춘천의 국립 K 대학의 부모교육과 아동발달을 수강하는 3개반 29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리 부모교육 및 아동발달을 강의하고 있는 본 연구자가 직접 운영하였으며, 다른 강사의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내용을 전달하고 조정하였고, VTR이나 컴퓨터영상자료 및 OHP자료도 같은 주에 감상하고 감상문도 동시에 써오게 하는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사후검사

사후검사를 위해 2004년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일제히 동시에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도, 자녀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

〈표 3〉 전체 문항 및 6개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

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도
	M	SD	M	SD		
전체문항	34.93	3.992	37.65	4.324	-8.178	.000***
임신영역	6.753	1.241	7.129	1.205	-5.062	.000***
출산영역	6.125	1.422	6.844	1.274	-6.520	.000***
신생아 및 유아발달	7.454	1.329	8.342	1.391	-7.708	.000***
태교영역	4.675	.8305	4.786	.7132	-1.738	.083
부모양육태도	5.352	1.242	5.824	1.274	-4.586	.000***
자녀성교육영역	4.570	.9116	4.723	.7384	-2.384	.018*

* $p < .05$ *** $p < .001$

가, 배우자 선택기준이나 중요성인식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질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점수 α 를 구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의 T-test를 실시했으며, 이밖에 성별(남녀), 연령에 따른 6분야의 사전사후검사점수차에 대한 ANOVA test, 추후검사로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기 준비프로그램의 지식 증가의 효과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할 지식들은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기 준비프로그램에 포함된 영역을 6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임신에 관한 영역, 출산에 관한 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에 관한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 영역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자녀의 성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태교에 관한 영역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 성별에 따른 6개영역 지식의 증가 효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남녀 대학생간에 6개 영역의 지식 증가 효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가지고 알아본 결과 여학생에게는 유의 수준 .001수준에서 지식에 의의 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남학생에게는 의의 있는 지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6개영역 중 어떤 영역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사후검사를 해본 결과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의 지식이 가장 의의 있게 증가했고, 출산영역, 부모양육태도 순서로 가장 의의 있게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태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연령에 따른 6개영역 지식의 증가효과
 연령별로 6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 증가 효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가지고 알아본 결과 만18세~만19세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만20세~만21세 집단은 유의수

〈표 4〉 여학생의 6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및 추후검사결과

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Tukey	F값
신생아 및 유아발달 영역	-.9643	1.788	A	
출산에 관한 영역	-.7813	2.388	A	
부모양육태도 영역	-.6973	2.462	A	.000***
임신에 관한 영역	-.2857	1.234	B	
자녀의 성교육 영역	-.2381	1.992	B	
태교에 관한 영역	-.1310	2.066	B	

*** $p < .001$

준 .001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냈지만 만22~만23세, 만24~만25세, 만25세 이상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18세~만19세와 만20세~만21세 집단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추후검증으로 Tukey검증을 해 본 결과 만18세~만19세 집단에서는 출산에 관한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에 관한영역, 부모양육태도영역, 태교에 관한영역, 임신에 관한 영역 순이었고, 자녀의 성교육 영역에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만20세~만

21세 집단에서는 출산에 관한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부모양육태도영역은 만18세~만19세 집단과 동일했지만 만20세~만21세 집단은 그 다음으로 자녀의 성교육영역, 임신에 관한 영역순서였고, 태교는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의 변화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81.0%의 학생들은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갖고자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 기준이나 중요성인식에 76.6%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다가올 결혼에서 배우자 선택과 자녀를 낳고자하는 의식에 유의 있게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5〉 연령에 따른 6개영역 사전사후검사 결과

연령	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Tukey	F값
만 18~만 19세	출산에 관한 영역	-1.321	2.711	A	.030*
	신생아 및 유아발달 영역	-1.314	1.762	A	
	부모양육태도 영역	-.8163	1.810	B	
	태교에 관한 영역	-.4571	1.686	B	
	임신에 관한 영역	-.3714	1.437	B	
	자녀의 성교육 영역	-.1714	1.224	B	
만 20~만 21세	출산에 관한 영역	-.8864	2.373	A	.031**
	신생아 및 유아발달 영역	-.8136	2.027	A	
	부모양육태도 영역	-.6558	2.655	B	
	자녀의 성교육 영역	-.3818	2.410	B	
	임신에 관한 영역	-.3182	1.267	B	
	태교에 관한 영역	-.1455	2.247	B	

* $p < .05$ ** $p < .01$

〈표 6〉 자녀를 갖고 싶은 의식변화 및 배우자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변화 결과

문항	응답	빈도(%)	합계(%)
자녀를 갖고자하고 자녀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239(81.0)	295(100)
	아니다	47(15.9)	
	무응답	9(3.1)	
배우자선택기준 및 중요성에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226(76.6)	295(100)
	아니다	57(19.3)	
	무응답	12(4.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주 동안 강의, 소집단 활동, VTR, 컴퓨터영상자료 및 OHP 등을 통한 자료 보기, 심리검사 자료 분석, 실물 모형보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할 지식들은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기 준비프로그램에 포함된 영역을 6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임신에 관한 영역, 출산에 관한 영역, 신생아 및 유아 발달에 관한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 영역에서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자녀의 성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태교에 관한 영역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모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양육태도

의 사전검사가 사후검사보다 의의 있게 높았고, 부모교육프로그램실시가 부모의 역할에 자신감을 주고 특히 자녀를 보다 더 존중하고, 신뢰하고 신뢰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장기순(1994), 한성심(1984)의 결과와 일치된 결과다. 또한 이런 결과는 아버지교육훈련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역할수행과 자녀성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유도봉(1995)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다. 그러나 태교에 관해서는 한국여성들이 홍콩이나 미국임신부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남아선호가 강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는 일, 출산이 가까워 올수록 세발이나 세욕을 주의하고, 장례식이나 상가에 가지 않는 등 태교에 다른 나라 임부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민하영·유안진(2003)의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다. 그것은 민하영·유안진 연구가 2세-2세반의 영아를 둔 한국어머니 및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아직 예비부모의 위치에 있는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태교는 임신 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태아에 대한 의식으로 아직 결혼 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태아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희박하므로 임신하지 않고 태교지식만으로는 받아드리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남녀 대학생간에 6개 영역의 지식 증가 효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가지고 알아본 결과 여학생에게는 유의 수준 .001수준에서 지식에 의의 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남학생에게는 의의 있는 지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6개영역 중 어떤 영역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사후검사를 해본 결과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의 지식이 가장 의의 있게 증가했고, 출산영역, 부모양육태도, 임신영역, 자녀성교육영역 순서로 가장 의의 있게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태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미래에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과 신생아 및 유아 발달영역의 지식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김주희 외(2003)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성교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2.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이고 반면에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인 또 다른 변수로서 연령별로 6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 증가 효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가지고 알아본 결과 만18세~만19세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만20세~만21세 집단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냈지만 만22~만23세, 만24~만25세, 만25세 이상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18~만19세와 만20세~만21세는 아직은 어린나이로 부모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연령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도 부모교육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을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18세~만19세와 만20세~만21세 집단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후후검증으로 Tukey검

증을 해 본 결과 만18세~만19세 집단에서는 출산에 관한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에 관한영역, 부모양육태도영역, 태교에 관한영역, 임신에 관한 영역 순이었고, 자녀의 성교육 영역에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만20세~만21세 집단에서는 출산에 관한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부모양육태도영역은 만18세~만19세 집단과 동일했지만 만20세~만21세 집단은 그 다음으로 자녀의 성교육영역, 임신에 관한 영역순서였고, 태교는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연령이 낮은 학생들에게 출산과 신생아 및 유아기 발달영역, 부모양육태도 등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령이 좀더 높은 만20세~만21세의 대학생들은 만18세~만19세 대학생들보다는 자녀 성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연령이 낮은 대학생들일수록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가치관과 행동은 아직 뚜렷한 성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성가치관과 성교육은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넘쳐나는 성 유희속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행동에 브레이크역할을 한다는 김주희 외(2003)의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기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자신과 미래의 자녀를 위해 자녀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도봉(1995)의 유아기 자녀교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대졸아버지집단이 고졸아버지집단보다 성에 대한 자녀의 질문에 숨기지 않고 나이에 맞게 솔직하게 대답해 준다고 보았는데 이는 대학교 때 교양 등을 통해 자녀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배

운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예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 부분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81.0%의 학생들은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갖고자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 기준이나 중요성인식에 76.6%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다가올 결혼에서 배우자 선택과 자녀를 낳고자하는 의식에 의의 있게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81%)의 남녀대학생들이 자녀를 갖고자 하고 자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대답한 이런 결과는 권춘기(1993)의 연구에서 부모역할훈련(P.E.T)프로그램이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양육태도가 개선되고, 결혼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자신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자녀에 대한 진보적인 교육수단사용이 증가되고, 성인 중심적 교육관에서 자녀중심적인 교육관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녀들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되었다고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준비교육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남녀대학생들(76.6%)이 배우자 선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대답한 결과는 이혼이라는 문제 상황은 다르지만 문현숙과 김득성(2003)이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재혼가족문제와 새로운 이성관계 및 재혼에 대한 어려움을 아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재혼에 대한 생각이나 재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녀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교육에 이성 관계문제와 결혼의 적응 및 자녀교육 문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에는 임신에 관한 영역, 출산에 관한 영역, 신생아 및 유아발달에 관한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 영역, 자녀의 성교육영역등을 포함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남녀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시 이런 영역들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교에 관한 영역은 대학생들에게는 지식만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차후에 고문헌조사나 비디오시청, 현대에 발전된 태교용품사용해보기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데 출산, 신생아 및 유아발달영역, 부모양육태도, 임신 영역 등에 의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미래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교육내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은 남녀모두 연령이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령이 적은 학생들일수록 출산, 신생아 및 유아발달단계, 부모양육태도, 임신, 자녀성교육, 태교영역 관련

내용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교육프로그램실시시 효과적이다.

셋째, 남녀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갖고자하고 자녀에 대한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남녀대학생들을 위한 부모교육에 이성 관계문제와 결혼의 적응 및 자녀교육 문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배우자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가 되기 이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필요한 아동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지 등 부모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 학기동안 이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한 것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프로그램의 효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구체적인 제한점은 첫째,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남녀대학생들에게 실시한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에 포함되는 자녀수용수준의 변화, 자녀훈육방법의 변화, 자녀와의 대화방법의 변화, 부모자녀 간 욕구갈등 해결하기 등 구체적인 부모자녀관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남녀대학생들을 성별, 연령별로는 살펴보았지만 이밖에 지역별, 대학학과계열별로 보다 다양한 계층에 세분화 시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집단 선-후 실험설계방법

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고, 외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해석 시 이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부모기 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제언을 해보면

첫째, 종합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부모교육 교과를 이용한 연구였기에 남녀 대학생들을 성별, 대학별, 연령별로 골고루 연구 피험자로 포함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비교적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기 준비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적응범위가 대학생들 이외에 같은 연령에 속한 미혼직장인들과 청소년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도부터 부모기 적응, 태교,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유아기발달, 양육태도, 자녀 성교육 등 비교적 부모기에 필요한 영역을 모두 포함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부모기 준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령이 어린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청소년의 경우 종교교의 가정교과서에 포함된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일부내용이외에 배우자 선택, 태교, 신생아 및 유아기발달에 관한지식, 자녀양육태도, 자녀 성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개인적이고, 성적으로도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중요한 부모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의 자녀 뿐 아니라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치관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밖에 10대 미혼모 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근로자 부모교육프로그램, 일반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장애아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특별한 계층을 위

한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1). 한국과 일본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길가영 · 최경숙(2003). 아동의 인지적 역제가 기억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2), 21- 37.
- 김경례(2001). 한국여성의 출산경험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 ·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허선자(1993).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교육학연구*, 31(5), 131-152.
- 김주희 외(2003). 성태도, 성행동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111-124.
- 김혜리 · 이경희(2003). 틀린 믿음과제와 틀린 사진과제에 대한 4, 5세 아동의 수행비교.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3), 37-50.
- 김혜선 · 박희성(2001). 델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2.
- 권연희 ·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행동. *아동학회지*, 24(3), 53-70.
- 권춘기(1993). 부모효율성훈련이 자녀지도방법 및 자녀의 안정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민 · 이춘재(2004). 사건회상에서 모델링인지면접의 효율성 : 4세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1), 1-20.
- 도현심 ·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민하영 · 유안진(2003). 임신출산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 한국, 홍콩, 및 미국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4), 157-168
- 민하영 · 유안진(2003). 어머니세대와 할머니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4(3), 99-109.
- 문현숙 · 김득성(2003).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집단 마라톤식 과정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1), 201-214.
- 박경자 · 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행동과 관련된 변인 :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문일(1999). *태교는 과학이다*.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박영충(1985).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현란 외(2004). 한국의 2세 아동에 있어서 색, 형태, 그리고 그 이외의 속성에 관한 개념화의 획득.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1), 95-112.
- 신용덕(1993). 모성 직업 활동이 조산과 저 체중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주 · 김혜수(2003). *새로운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 이경희(2000). *부모교육과 아동발달*. 교문사.
- 이선하(2001). 여성의 태교에 관한 인식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03).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 관계, 부모성장과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지연외(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1), 131-146.
- 유도봉(1996). 유아기 자녀교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 · 강문희(2004). 임신 중 태아와의 상호작용증진프로그램이 어머니-신생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2), 157-176.
- 이현진(2003). 마음이론과 언어에 대한 아동의 이해의 고찰 : 단원성을 중심으로.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1), 47-68.
- 유안진(1983). 한국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사회화. 한국인의 초기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9-116.
-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기순(199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자모들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외(1996). 한국임부의 태교요인- 동양 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가 관리. *대한간호학회지*, 38(8), 61-77.
- 장유경 · 김숙현(2003). 유아의 한글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3), 87-102.
- 장유경 · 엄윤주(2003). 유아기영어학습 경험이 상위 언어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1), 69-81.
- 전춘애 · 박성현(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통계청(2002). 인구주택 총 조사.
- 한국유아교육학회 편(1996). *유아교육사전*. 서울 : 한국사전연구소.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십(1983). 부모훈련프로그램모델에 관한 실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희 · 이 영(2003). FACS에 의한 한국영아의 미소 얼굴표정 분석연구.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6(3), 155-172.
- Croake, J. W., & Glover, K. E.(1977). Parent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Journal of Home Economics*, March, 24-27.
- Deusch, F. Lussier, J., & Servis, L.(1993). Husband at home : Predictor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54-1166.
-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Earhart, E. M.(1980). Parent education : A lifelong proc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39-43.
-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Holterman, Ashiru, Abdulla, Blew, Sundaajan, Rao., & Eadhakrishnam(1999). Clinical relevant embryology : New approaches to education, *Pediatrics*, 104(784).
- Hoffman, L.(1989).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cal*, 4, 283-292.
- James. M.(1979). *Marriage is for loving*. Addisob Wesley pub. Co., pp. 134-155.
- Kessler, R. McRae, J.(1982). The effect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47, 216-227.
- Lee, J. A.(1975). *Colors of Love*. Toronto : New Press.
- Lasswell, M., & Lobsenz, N. M.(1980). *Styles of Loving*. New York : Doubleday.
- MacDowell, D. J., & Parke, R. D.(1984). Differential knowledge of display ru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 Influences on peers. *Social Development*, 9(4), 415-432.
- McAfee, O., & Nedler, S.(1976). *Education for parent-hood : A Primary Prevention Strategy for Child Abuse and Neglect*. Denver :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Mcloyd, V. C., & Wilson, L.(1991). The strain of living :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p. 105-135). NY : Cambridge Univ. Press.

- Melson, Ladd & Hsu(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 and young childr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Miller, N. B., Crown, C. P.,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1993). Externalizing in pre-schoolers and early adolescents : A cross-study replication of a family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3-18.
- Piaget, J.(1954). *The construction of relativity in the child*. N.Y : Basic Book.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 51-71). Hillsdale, NJ : Erlbum.
- Weissman, M. M.(1987).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Increased psychology and early onset of major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47-853.

2005년 10월 31일 투고 : 2006년 1월 28일 채택